



4월 21일
수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희	팀장	박상미	☎	286-6320
----	--------	----	-----	----	-----	---	----------

클래식 듣고 자란 벼야, 맛있는 밥을 부탁해!

- 강진 오경배 유기농 명인의 결실, '음악 듣고 자란 쌀' -

농촌 들녘에 그린음악과 토양미생물을 이용하여 고품격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 신전면 별정리에 간척지 논 주위에서 오전에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등의 클래식이, 오후에는 전통음악인 사물놀이, 농악 등이 40대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이 마을 오경배 유기농 명인(영동농장 대표)은 23년째 간척지에서 '그린음악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그린음악농법은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 모에서부터 출수 35일까지 클래식과 전통음악을 계속 들려주는 농법으로 벼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영양분 흡수를 촉진하고 병충해 발생 억제할 뿐만 아니라 쌀의 당도가 높아져 밥맛이 매우 좋게 한다고 한다.

영동농장의 친환경농업은 1998년부터 시작한다. 경험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빈번한 병충해에 시달렸고 친환경농업 10년 동안은 잡초와 전쟁을 치를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공적인 친환경농업을 달성하는 데 많은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현재는 '그린음악농법', '잡초제거를 위한 어린 우렁이 사용', '소식재배'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유기농 쌀 80ha와 유기농 겉보리 40ha를 계약재배하여 전량 납품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영동농장 오경배 대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에는 벼 분야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7호로 지정되었다. 2016년에는 USDA(미농무성) 유기농 쌀 인증 획득, 2017년에는 유기농 쌀 7톤이 즉석밥으로

가공되어 미국본토에 수출되고 있다. 현재는 (주)한국바이오프랜트에 유기농 쌀 39톤을 즉석밥 원료로 납품하고 (주)일화에 유기농 겉보리 200톤을 맥콜 음료 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유기농 명인 오경배 대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해야 농업이 존재한다라는 신념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유기농산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지난해까지 벼 7명, 과수 8명, 채소 3명, 밭작물 2명, 기타 2명, 총 22명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고 유기농업 확산에 전념하고 있다.